



제 85 호

경상북도 의회소식



council.gb.go.kr

도민에게 편인한 의회, 열린 의회, 소통하는 의회

Gyeongsangbuk-do Council News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2014. 9. (제272회 임시회)



황금들판 달리는 경북관광열차(상주시 시범면 일출동)

제272회 임시회

경북도 및 교육청 추경예산 심사

도정현안사항 도정질문, 민생관련 현안안전 처리



제27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경상북도의회는 8월 22일부터 9월 4일까지 14일 간의 일정으로 제272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제272회 임시회에서는 경북도 및 도교육청에 대한 5명 의원의 도정질문과 민생관련 각종 안건, 2014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했다.

첫날은 8월 22일 오후2시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72회 임시회 회기결과와 함께 본회의장에서 독도수호 결의안을 채택하고, 쌀 관세화 발표에 따른 쌀 산업 발전대책 마련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어 8월 25일 오전11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김관용 도지사와 이영우 교육감으로부터 경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황재철 의원(영덕군), 이진락 의원(경주), 장용훈 의원(울진) 등 3명의 의원이 도정질문을 했다.

이어 26일 오전11시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김수문 의원(의성), 강영석 의원(상주)이 도정질문을 했다.

8월 27일부터 31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경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예비심사하고, 민생과 관련한 각종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했다.

이어 9월 1일부터 3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경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 후, 9월 4일 오전11시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심사 당초 예산 대비 경북도 4,045억원, 도교육청 1,824억원 증액처리



도의 경우 당초 예산에 비해 4,045억원이 증가된 7조 3,985억원이며, ② 도교육청 예산도 1,824억원이 증가된 3조 5,608억원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법정·의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창화, 포함)는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27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확정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① 경북

무적 경비의 과부족분 반영,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경북실현, 신성장동력 산업육성을 통한 일자리창출,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당면 현안과제 추진에 따른 사업비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강도 높은 심사를 했다. 🍌

장대진 의장, 아이스버킷 챌린지 동참

다음 동참자로는 서호주의회 마이클서더랜드 의장



장대진 경상북도의회의장은 8월 28일 오전 11시 경상북도의회 전정에서 친선교류를 위해 경북도의회를 방문한 서호주의회 이안 블레이니 경제위원회 위원장 일행과 홍진규 운영위원장, 김희수 기획운영위원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아이스버킷 챌린지 행사에 동참했다.

장대진 의장은 이동희 대구시장의 지명을 받아 참여하게 되었으며, 다음 동참자로는 서호주의회 마이클서더랜드 의장, 이영우 경상북도교육감, 채원봉 농협 경북지역본부장을 지명했다.

장대진 의장은 "현재 루게릭병은 국내에서도 수천명의 환자가 치료약이 아직 발견되지 않아 고통속에 살고 있다며, 뜻 깊은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

차례	지면안내
화보 황금달년 달리는 경복관광열차상주시사별면 원동물	1면
의정소식 / 의정만평	2~4면
상임위원장 릴레이 인터뷰 홍진규 의회운영위원장, 김희수 기획경제위원장	4~5면
특별기고 - 지방분권은 더 이상 아물 수 없는 국가적, 시대적 발수 / 김관용 경북도지사	6면
상임위원회 활동 의회운영·기획경제·행정안전복지·문화환경·농수산·건설소방·교육위원회 활동	7~13면
도정질문 / 5분 자유발언 - 도정질문·황재철·이진락·장용훈·김수문·강영석의원 - 5분자유발언·남진복·구자근·이상무의원	14면
제272회 임시회 주요처리안건 건강칼럼 - 코골이 장치를 치료 / 김광호 맥이비인후과	15면

의정만평



경상북도의회소식

발행인, 장대진 기획·편집, 장영호, 남정해
편집인, 이태암 발행처, 경상북도의회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Tel. 053-602-5113 Fax. 053-602-5120

지방의회 혁신과 변화 위한 대토론회 개최

답습적인 지방의회 발전방안 그만, 지방자치법 개정부터

경상북도의회는 8월 28일 오후 1시30분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및 대한 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경북도의회, 경북시군의회의 장협의회와 경북도내 시군의원, 관계 공무원 등이 대거 참여하는 '지방의회 혁신과 변화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24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열악한 지방재정과 중앙집권적인 환경 등은 여전히 지방자치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양대 축이면서도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경상북도의회가 지방의회의 혁신과 변화를 불러 일으키고 지방자치 발전을 앞당기고자 대토론회를 준비했다.

특히 이번 대토론회는 장대진 경상북도의회 의장이 현행 지방자치법 아래서는 지방자치는 허울뿐이라면서 전국시도의회의 공동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직속 지방자치법 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키로 한 이후 시행되는 것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보다 실질적으로 한발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대내외의 관심을 끌고 있다.

대토론회에서는 명지대학교의 임승빈 교수가 '지방자치 현주소와 미래과제'를, 경일대학교 최근열 교수가 '민선6기 시대 지방의회의 당면과제'를, 경북대



학교 하세현 교수가 '지방정치와 지방의회의 발전방안'을, 한경대학교 최승범 교수가 '지방의회와 주민간 소통증진방안'을 각각 발표하고 학계는 물론 강영석 도의원, 홍진규 도의원, 권호락 영천시의회 의장, 장해숙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포함지부 대표 등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이어가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토론회의 실질적인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도기욱 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장(예천)은 '이번 대토론회가 지방자치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며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발전과 풀뿌리민주주의의 초석이 되는 지방의회의 역량강화방안을 도출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강조했다.

장대진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이번 대토론회를 통하여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의 구현, 그리고 지방의회의 발전방안들이 해묵은 논의에만 그치지 말고 지방자치법 개정 등 보다 실질적인 발전방안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나갈 것'임을 밝혔다. ◆

2014 경북도의회 의원 연수회 개최

의정활동 능력향상, 전문성 제고, 집행부와 의회간 소통강화

경상북도의회는 제27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안건 20여 건 심사를 마치고, 제10대 경상북도의회 개원에 따른 의정활동 능력향상 및 전문성 제고와 집행부와 의회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문화융성 시대를 맞아 우리 정신 문화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14 의원연수회를 정신문화의 수도인 안동 한국국학진흥원에서 9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가졌다.

연수회에는 도의원 60명과 김관용 도지사, 이영우 교육감, 권기선 경북지방경찰청장, 권영세 안동시장, 홍덕률 대구대 총장, 채원봉 농협 경북지역본부장을



비슷한 관계 직원 200여 명이 참석하여 경북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 교환과 화합,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

일본 방위백서,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만장일치로 채택, 일본정부 강력 규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2일 오후 3시 30분 정기회가 열린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일본 정부가 2014년판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땅'이라고 기술하여 발표한 것에 대해 무지물 각한 망동이라고 강력히 규탄하고, 부당한 주장을 철회할 것과 이런 행위의 재발 방지를 엄중히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장대진 경상북도의회 의장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땅'이라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10년째 반복하고 있지만,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분명히 밝히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하나같이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일방적인 주장들 뿐이며, 지금이라도 독도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것이 한·일 간의 미래를 위해서도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일본의 반성과 과감한 인식의 전환과 아울러 침략주의 근성으로 주변국과의 갈등을 끊임없이 야기하는 제국주의적 행동도 즉각 중단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정책연구의 산실, 정책연구위원회 출범

도의원의 자율적이고 실질적 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



제10대 경상북도의회가 체계적인 정책연구와 입법 기능 확대를 통하여 의회차원의 역량강화는 물론 도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원 연구단체활동을 측면지원하고 도정현안들에 대한

다양한 연구활동을 펼쳐나갈 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되어 그 어느 때 보다도 의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었다.

8월 25일 10시 경상북도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경상북도의회의 6개 각 상임위원회에서 2명씩 추천하는 12명의 의원과 의장이 직접 추천하는 3명으로 구성되는 제5기 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의 임사회가 개최했다.

먼저 이날 임사회에서는 15명의 도의원으로 구성된 제5기 정책연구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으로 예천출신의 재선의원인 도기욱 의원(기획경제위원회)을, 부위원장으로 조주홍 의원(농수산위원회)을 각각 선출했으며, 정책연구위원회 경과사황보고를 비롯 2015년도 사업추진계획 등에 대한 열띤 논의를 했다. ◆

경상북도의회 조직개편 발표

전문직 5명 공모, 의정활동홍보·입법정책 기능 크게 강화



경상북도의회는 제10대 개원을 맞아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고 점점 확대되어 가는 자치입법의 수요 증가 추세에 대응해 나가기 위하여 의원들의 입법정책 및 의정활동 홍보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의회사무처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그 내용을 보면, 입법정책관실에 근무하는 전문직 5명을 의회에서 공모하는 것으로, 우선 지방서기관 이던 입법정책관을 4급 개방형 직위로 공모하고 관련분야 전문가를 채용하여 책임성과 업무추진의 독립성을 부여하며, 임기제(전문계약직) 공무원 4명을 공개 모집하여 의회 고유기능인 입법활동의 전문성을 더욱 높여 나가게 되었다. 의회내 전문직 공무원들이 각 상임위원회를 전담하여 조례 제·개정 등 입법활동 지원을 전담하고 아울러 정책연구와 의회

차원의 정책 건의 등을 담당하며, 기존 의회자료실을 입법자료실로 전환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현재 의회사무처 전문직 공무원이 8명이었으나 5명을 공모하여 총 13명이 됨으로써 그동안 부족한 전문직으로 인하여 의원들의 입법수요 증가에 부응하는 다양한 입법활동 지원에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을 많이 보완함과 동시에, 23년이 지난 지방자치이제는 중앙정부에 예속되지 않고 제자리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차원에서 스스로 연구하며 지방자치발전 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나가는 의원들의 역량을 높여 나가는 것이 절실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앞으로 의원들의 자발적인 연구단체인 정책연구 위원회와 의원연구 단체가 왕성한 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를 적극 지원하고 홍보하고 의원 연구활동의 전문성을 높여 나가는데 전문직 공무원의 역할이 중대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집행부와 협의하여 전문직 인력을 공개채용하게 된다. ☘

서호주의회와 우호교류협력



경상북도의회(의장 장대진)는 8월 28일 서호주의회 소속 경제 및 표준산업위원회 이안 블레이니(위원장), 쉐인러브(위원) 일행을 접견하고, 상호 우호협력 및 지방외교 활성화를 위해 폭 넓은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서호주의회 일행의 방문은 지난해 10월 서호주의장단 도의회 방문 이후 두 번째 방문이다.

이날 경북도의회에서는 장대진 의장, 홍진규 의회 운영위원장, 김희수 기획경제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호주의회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행정과 의정활동에 대해 정보를 교환했으며, 경북도의회 운영시스템 및 도정 발전을 위한 역할 등 필요한 정책을 서로 공유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서호주의회 의원 일행은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포항, 울산 등을 방문하여 경북의 경제 및 주요 산업 발전 등을 벤치마킹할 예정이다.

장대진 의장은 "이번 서호주의회의 방문으로 양 의회간 교류협력을 도모하고, 앞으로도 서호주의회와 잦은 교류를 통해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2014년 을지연습 참관



장대진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8월 19일 오후 3시 윤창욱, 장경식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과 함께 2014년 을지연습 참관 및 관계공무원 격려를 위해 경상북도 충무시설 연습장 종합상황실을 방문하여, 훈련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충무시설 내 각 실시부서 근무자를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민·관·군 합동으로 실시되는 을지연습은 전 시대비 뿐만 아니라 재해나 재난, 테러 등 국가 비상사태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지역안보의 종합적 방위태세 구축을 위한 위기 대응 훈련으로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실시된다.

이날 훈련을 참관한 장대진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유사시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2014을지연습을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이번 훈련을 통하여 민·관·군이 통합된 방위협력체제가 더욱 공고히 될 수 있도록 훈련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본연의 업무를 병행하면서 훈련에 임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

추석 장보기, 전통시장 방문



장대진 경상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회사무처장, 직원 50여 명을 8월 29일 민족고유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안동 중앙신시장을 방문하여 민생안정 및 서민경제 살리기를 위한 '전통시장 이용하기 캠페인 및 추석 명절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

추석 맞이 장보기 행사에 참석한 직원들은 미리 구입한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제수용품과 생필품을 구입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안동 전통시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이용 및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특히, 이날 의회사무처 추석 맞이 장보기 행사에는 장대진 경상북도의회 의장과 이영식·김명호·김인중 도의원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등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대진 의장은 앞으로도 의회사무처가 솔선수범하여 직원 및 직원가족들이 전통시장 이용 생활화, 전통시장 상품권 구매 등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전통시장 장보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

역대의장 초청 간담회 가져

"도민에게 편안한 의회, 열린 의회, 소통하는 의회" 역점



장대진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8월 14일 오전 11시 의장접견실에서 역대 경상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김관용 도지사, 이영우 도교육감, 윤창욱·장경식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과 함께 제10대 도의회 운영방향에 대한 설명과 앞으로 의정발전 방안에 대한 고견을 듣는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장대진 의장은 제10대 경상북도의회 운영방향을 "도민에게 편안한 의회, 열린 의회, 소통하는 의회"로 두고, 도민을 위한 민생안정, 합리적 정책대안 제시, 희망과 변화를 선도하는 힘 있는 의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역대 의장님께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사랑, 참여, 자문역할을 해줄 것을 강조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역대의회 초청 간담회를 통해 지방의회 정체성 확립에 큰 역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많은 조언은 도정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

특별위원장 인터뷰 시리즈

집중 인터뷰

의정활동 역동적 시스템 구축
일하는 의회, 전문성 갖춘 의회

홍진규 의회운영위원장(군위군)

경상북도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각 상임위원회 간의 의정활동 등을 조율·지원하는 '조정자'로서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고, 한편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첫 소감을 밝혔다.

홍진규 위원장은 의회 운영방식으로 의정활동의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관행과 관습은 과감히 개혁하고 체계적인 입법정책 연구기능 및 의정홍보 활동 강화를 위해 입법정책관실에 전문직 5명을 외부공모 충원하는 조직개편안을 단행, 모두 13명의 전문직 공무원을 확보함으로써 의회의 정책전문성 강화 및 다양한 입법수요 증가에 신속히 대응하는 역동적 시스템을 구축 '일하는 의회, 전문성을 갖춘 의회'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의장단과 7개 상임위원장이 참석하는 확대연석회의의 정례화를 통해서 의회의 운영방향을 설정하고 집행부 주요 사업추진 상황 및 현안과제를 집중 점검하여 미진한 분야는 의회차원의 지원·보완책을 강구하는 것 외에도 의회 본연의 견제와 균형, 협력 기능에 충실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의회의 제역할 수행과 기능

강화 요건에 대해서는 우선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과 인식을 개선하고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의회 자체의 부단한 자정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를 위해서는 입법정책실적 및 의원윤리실천 등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의 중심이 되는 위원회로서 '각 위원회간 의견 조정능력'이 가장 중요한 만큼 각 상임위원회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소통과 화합의 민주적인 의회 체제 구현에 노력하고, 또한 의원 개개인이 지역구의 대표로 입성한 만큼 자칫 지역 이기주의에 매몰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갈등요인의 해소를 위해서는 양보와 배려의 미덕으로 감싸야 한다는 것이 홍진규 위원장의 정치철학이다.

끝으로 주민의 행복실현은 최고·최선의 가치이므로 주민의 다양한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친서민적인 민생정치, 300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지역민으로부터 관심받고 사랑받는 의회,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욕을 드러냈다. 🍌

공부하는 위원회로
집행부 견제력 높일 것

김희수 기획경제위원장(포항시 2)

"도민의 뜻이 우선되는 의정활동, 도민이 소망하는 경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10대 경상북도의회 전반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희수 도의원(포항)이 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밝힌 소감이다.

김희수 위원장은 재선의 지역구 출신 도의원으로 제9대 때는 4년간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였고, 경영평가위원을 4년간 역임하였으며 제10대에 들어와서는 기획경제위원장을 맡는 등 도의회에서는 기획경제 분야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도정의 주요 사업에 따른 자료조사 및 다양한 연구활동, 전문가 의견자문, 선진 의회 벤치마킹 등 연구하고 공부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하며, 또한 경북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고,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부자 경북을 만드는 데 의정활동의 중점을 두고, 더불어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민생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책화하는 1등 위원회로 만들겠다는 것이 그의 위원회 운영 방침이다.

특히, 10대 전반기 위원장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볼 대목은 출자출연기관 구조조정이라고 밝혔다. 기획경제위원 4년과, 출자출연기관 경영

평가위원 4년간 활동하면서 출자출연기관 구조조정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번 구조조정 할 것을 지적하였다고 밝히고 그 동안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건의해 왔지만 집행부에서는 묵묵부답이었다가 새출발위원회에서 구조 조정안이 반영되어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하였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번 기회가 산하기관 구조 조정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철저히 챙기겠다는 것이 그의 복안이다.

기획경제위원회에 5년째 활동하고 있어 누구보다 소관업무에 대해 많이 알고 있으며, 초선 의원들에게 의정활동 노하우를 가감 없이 내놓을 작정이라고 밝히고, 의원들이 전문성을 가질 때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의원만이 도민들의 행복을 찾아 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300만 도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 받는 의회, 할 말과 할 일을 제대로 하는 의회, 각 계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도정에 반영함으로써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하는 것이 그가 도의원으로서 바라는 작은 소망이다. 🍌

지방분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시대적 필수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최근 제10대 경상북도의회에서 진정한 지방자치와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다하는 모습들을 보고 민선6기까지 지방자치 20여 년 역사와 함께 민생 현장을 지키면서 끊임없이 주장해 온 필자로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다.

지난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되고, 1995년 자치단체장 직선 이후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방자치는 여전히 허울뿐이고 불행한 자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재정은 2할, 사무는 3할 자치에 머물고 있어 지방자치제도의 원칙과 본질에 어긋나는 '비정상적인 자치'라는 안타까운 평가를 받고 있다. 대부분의 권력 수단과 자원, 인력, 결정권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고, 지방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자치의 범위가 크게 제약되어 있기 때문이다.

1980년대 이후 미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선진국들은 국가 경쟁력이 곧 지방의 경쟁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일찍부터 인지하여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21세기에 들어와서 지방화·세계화·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지방분권형 국가운영체제로 환골탈태 중이다. 이는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할 만큼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무는 더욱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며, 우리가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는 사이 선진국들은 전걸음으로 저만치 달아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도 성년이 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더 늦지 않게 지방분권형 국가운영체제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지방분권은 대한민국의 지역이 세

계의 지역과 대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이며, 대한민국의 생존의 문제다. 국가의 새로운 도약과 지방자치의 실질적 정착을 향해 자치권한의 자율성과 책임성, 자치재정의 건전성 등 지방분권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점에 이르렀다.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설치되어 행정 및 재정 분야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분권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새로운

있는 재정자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지방공무원들이 돈 때문에 매일 중앙부처를 찾아 다니며 애걸하는 구조도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국가사무를 현장밀착형으로 과감하게 지방에 넘겨 주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의 최종 집행자이자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서 지방과 관련된 국가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자체의 정책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국가백년대계 차원에서 지방분권의 헌법적 보장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의 접근과 검토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더욱 키워야 한다. 지방분권이라는 곳간의 빗장을 활짝 열어야 한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지방분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미뤄서도 안 된다. 이는 누구를 위한 정책이 아닌 궁극적으로 국민을 향한 정책임을 주지해야 한다.

지방분권은 우리 스스로가 적극적인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중앙정부로부터 찾아야 할 '스스로의 몫'이며, 성년을 맞이한 지방자치가 지방분권을 통해 꽃피울 수 있도록 지방행정 책임자의 한사람으로서 앞장서 나갈 것이다. 지방분권의 종착역은 분권개헌이며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형 국가이다'를 신설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그에 맞는 권한과 책임을 지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더욱 더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이다. 지방분권은 우리에게 있어 국가적, 시대적 필수과제이며, 숙명이기 때문이다. 🍎

지방분권은 우리 스스로 적극적인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중앙정부로부터 찾아야 할 '스스로의 몫'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을 마련하고 지방분권 정책의 기초 확립과 자치기반 확충,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추진 로드맵을 수립 중에 있다. 여기에는 그 동안 지방에서 요구하고 건의했던 부분이 상당수 반영되었지만,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부분에서 충분한 보완이 필요하며, 중앙정부의 더욱 더 과감한 결단과 이행이 남아 있다. 필자도 제대로 된 자치조직 운영권 확보에 따른 지방자치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게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이 주어져야 하고, 지방이 자치역량을 발휘할 수

지역주민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할 수 있다. 이는 바로 지역이 다름 아닌 4천 9백만명 국민이 사는 공간이기 때문이며, 주민이 체감하는 공감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제27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활동

도정 현안사항 해결위해 5개 특별위원회 구성 '의원 윤리강령 실천의지 확고화'로 모범의회 다짐



1. 2014년 제1회 추경 예산심사

2. 제10대 경상북도의회 운영위원회 워크숍

1차, 2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홍진규)는 8월 22일부터 9월 4일까지 14일간 열린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2차에 걸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 8월 22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제273회 제1차 정례회 회기협의의 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경북·대구 상생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지방분권 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1건의 협의안과 5건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위원회 제안으로 발의하여 원안 의결하였으며, 26일 제2차 회의에서는 '201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원안 의결했다.

처리안건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윤리특별위원회는 배한철(경산) 위원장, 윤종도(청송) 부위원장을 비롯해 강영석, 고우현, 김위한, 장영석, 최태림, 홍진규 위원 등 8명으로 구성했다.

지방의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필요시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위원은 9명 이내로 구성하며 201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한다.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는 구자근(구미) 위원장, 이수경(성주) 부위원장을 비롯해 박현국, 이태식, 김봉교, 이운식, 박정현, 남천희 위원 등 8명으로 구성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광역적 사업의 공동추진 등 상생과 동반성장을 위한 의회차원의 공동노력에 협력한다. 위원은 9명 이내로 구성하며 201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한다.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는 김명호(안동) 위원장, 황재철(영덕) 부위원장을 비롯해 도기욱, 황병직, 이상구, 이흥희, 박문하, 조현일 위원

윤리, 경북·대구 상생발전, 지방분권추진, 원자력안전, 독도수호특위 등 대·내외적 활동에 만전

등 모두 8명으로 구성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재정확충 및 재정건전성 확보와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의 지방이양 등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위원은 9명 이내로 구성하며 201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한다.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는 최병준(경주) 위원장, 장용훈(울진)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수문, 배진석, 이동호, 이진락, 장두욱, 조주홍, 황이주 위원 등 모두 9명으로 구성했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해, 우리나라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 가동과 부품 성적 조작 비리, 원전추가 건설 등으로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원전 안전 관리에 대한 점검 등 의회차원의 대책을 강구

한다. 위원은 9명 이내로 구성하며 201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한다.

△독도수호특별위원회는 이정호(포항) 위원장, 김창규(칠곡) 부위원장을 비롯해 곽경호, 김종영, 나기보, 남진복, 안희영, 정상구, 한혜련 등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일본의 독도영유권에 대한 야욕에 단호하고도 강력하게 대처하고 민족적 자존심을 대외에 표방한다. 위원은 9명 이내로 구성하며 201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한다.

그리고 201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는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과 보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불용 및 낭비성 예산 삭감 등 효율적 예산운용에 초점을 맞추어 줄 것을 주문했다. 🍀

행정사무감사 여론수렴 위한 "도민 제보받습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대진)는 제27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11월 7일 ~ 11월 20일)에 앞서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gb.go.kr/>)에 도민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 경북도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합니다.

경상북도의회는 홈페이지 또는 의회사무처 등 소통의 장 코너를 마련,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11월 20일까지 2014년도 업무추진에 대한 평가와 방향·정책대안 등을 위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경북도정 및 경북 교육행정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도민들로부터 도정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제도개선, 부당사례, 시정사항, 생활불편 등의 제보를 받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제27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활동

조례안 심사 및 추경예산안 심사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희수는 제272회 임시회를 맞아 8월 26~28일까지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조례안 심사 및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실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상북도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하였고, 6개 실국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했다.

먼저, '경상북도고문변호사 전부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 위촉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고문변호사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



예산편성시 모니터링 통한 피드백 있어야 공모사업에 적극대응, 국비확보에 최선 다해 달라

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였고, '경상북도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경상북도 규제시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하였다.

'경상북도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스스로의 능력을 갖춘 적극적·주권적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개정하였으며, '경상북도과학기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과학기술진흥회의의 위상을 강화하고 첨단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기 위해 개정했다.

한편,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박현국(불화) 의원은 '도정역점시책추진우수시군상사업비' 신규 편성사유를 묻고 투입되는 예산만큼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김위원

조례안 개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대처 미흡 지적

비례) 의원은 '농식품 ICT융·복합모델개발사업', '수산물-IT융합모델화사업', '농식품ICT 융복합확산사업'은 중앙부처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농수산물 분야 소득향상 및 중장기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우리 도가 꼭 필요한 사업으로 평가했다.

김창규(철곡) 의원은 '경북 신미래 전략과제 발굴 기획홍보'는 추경에 계상할 만큼의 긴급한 예산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하였고,

이태식(구미) 의원은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피드백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진석(경주) 의원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국비확보와 함께 우리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1. Posco 견학
2. 고문 변호사 조례 심사
3. 추경예산안 심사

제27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활동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공모사업 등에 특정지역 예산편중, 균형발전차원에서 제고필요

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황이주)는 8월 26일에서 8월 27일까지 양일간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감사관실, 여성정책관실, 안전행정국, 보건복지국, 공무원교육원, 경북도립대학교)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했다.

먼저, 여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는 김인중(비례대표) 의원은 저출산 시대에 출산장려 운동조직 지원에 대한 예산 전액삭감 사유를 묻고, 출산장려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홍진규(군위) 의원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국고보조사업인 신생아 지원 사업을 예로 들면서 매년 지방비 보조율이 상향조정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국비확보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숙(비례대표) 의원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일부 지역아동센터는 대표자와 사무국장 등이 친족형태로 운영되는 곳이 많아 전문성이 부족하고 운영 프로그램 내용도 단순하다며, 향후 사업 운영평가를 반영하여 사업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관실 소관 심사에서 이정호(포항) 의원은 금번 추경예산에 정책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이 없다며, 청렴도 하위수준인 경북도가 청렴 정책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청렴도를 높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안전행정국 소관 심사에서 황이주(울진) 의원 등은 경상북도 새마을회관 구조개선 공사 예산 계상은 당초 건립공사시 수영장 등 부대 시설 건립 타당성 검토 미비로 인해 운영 적자가 난 것으로 또다시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향후 산하 기관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시 면밀한 경영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을 역설했다.

또한, 1회성·소모성, 선심성, 유사중복 행사 지



1. 2014년도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의원 워크숍

2·3.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유사 중복성 사업 많고, 예산 배분시 지역별 형평성 맞춰야

원 사업비가 많으며, 광역 지자체인 도에서는 대표성을 띠는 행사에만 예산지원을 할 필요가 있으며, 유사 성격의 행사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같은 날 개최를 제안했다.

보건복지국 소관 심사에서 황병직(영주) 의원은 노인복지시설 홍보, 할매·할배의 날 홍보물 제작 및 홍보, 독거노인 시책 홍보 사업은 유사한 홍보성 사업으로 예산절감을 위해 통합 관리하여 홍보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최태림(의성) 의원은 장애인 생활시설 종사자 통계 수치가 매년 상이하다고 지적하고 사회복지 시설에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해 주면서 보조금 과다 및 중복청구로 인해 복지 예산이 누수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하였으며, 남진복(울릉) 의원은 재난현장 응급의료소 설치 장비인 에어텐트 설치 신규 편성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재난 발생시 사상자 분류, 응급처치 등으로 응급의료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김봉교(구미) 의원은 발달장애 학생 자기주도적 여가활동 멘토링 사업비는 장애 학생수 등을 감안할 때 사업비 지원이 부족한 건 아닌지를 지적하고,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자립 지원 사업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조례안 등 심사에서는 '경상북도공무원 주거안정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4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황이주(울진) 위원장은 금번 추경예산 편성을 살펴보면, 유사 중복성 사업이 많고, 공모사업 등에서 특정지역에 배분되는 예산이 많음을 지적하면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기타 지역도 형평성을 맞추어 줄 것을 촉구했다. 🍅



문화환경위원회

제27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 활동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박권현)는 제272회 임시회 기간중인 8월 26일(화)부터 27일(수)까지 이틀간 소관 부서인 문화관광체육국, 환경산림국 및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고 제52회 도민체전과 '이stanbul in 경주' 행사 준비상황 등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먼저, 26일 열린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회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언급하며 도내 농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위한 관련 장비 구입이 시기적으로 늦은 사유를 따져 묻고, 도민들의 먹거리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발빠르게 대처해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향후 현장을 찾아가는 이동식 안전성 검사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열린 문화관광체육국 당면현안사항 보고에서는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4일간 문경시에서 열린 「제52회 경북도민체육대회」의 전반적인 준비상황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스포츠를 통한 도민 대화합과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대회



추경 편성 취지에 맞게 신규사업 억제 및 사전 검토 철저 준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도민체전과 '이stanbul in 경주' 행사 등 현안 보고 청취

준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문화엑스포로부터 「이stanbul in 경주 2014」 행사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지난해 성공적으로 개최한 「이stanbul-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3」을 바탕으로 경북이 문화융성시대를 선도함으로써 한국문화의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8월 27일 제2차 회의에서는 문화관광체육국과 환경산림국 및 관련 사업소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안 심사에서는 9월 12일부터 개최된 「이stanbul in 경주 2014」 행사에 지역 예술인들이 적극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촉구하고, 국제행사에 걸맞도록 작은 부분까지 꼼꼼하게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사업'과 같이 소규모 사업도 도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균형감각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했으며, 차별성이 부족하고 수익성이 낮은 행사는 과감히 줄여 나갈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세계 화시대에 견줄 만한 경쟁력있고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사업발굴에 힘써 줄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한국 코미디 창작촌 사업' 등 일부사업이 감액계상된 것에 대해 사업추진에 차질은 없는지 등을 따져 묻고 사업진도에 따른 예산투입에 철저를 기해 줄 것도 함께 주문했다.

이어 오후에 열린 환경산림국 및 관련 사업소 예산안 심사에서는 내년 4월에 개최 예정인 「제7차 세계물포럼대회」와 관련하여 대구시에 비해 홍보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며, 어렵게 유치한 국제대회인 만큼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위원회는 세계물포럼 행사가 대구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도가 주도적으로 나서 줄 것과 물포럼행사를 적극 활용하여 도내 물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능동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원회는 특히, 예산안 심사 대상 전 부서에 대해 이번 추경예산안이 본예산 못지않게 신규사업이 많이 편성되었음을 지적하고, 추경예산 편성 본래 취지에 맞도록 각 사업에 대해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계획성있는 예산 편성을 강조했다. ◆



1·2. 문화환경위원회소관 추가경정예산심사 및 당면 현안 청취

농수산위원회

제27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활동

제역 방역대책 및 쌀관세화 현안 보고



1, 2. 구제역 방역대책 및 쌀관세화 현안 보고
3. 조례 및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독도수호 결의안, 정부 쌀산업발전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 닭 도축검사 수수료 인하 등 현행 조례들 미비점 보완 개정

결의안 심사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정영길)는 8월 18일 제 272회 임시회 본회의에 농수산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한 2건의 결의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하였다.

농수산위원회에서 제안한 ‘독도수호 결의안’은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강력히 규탄하고, 독도 수호에 대한 경상북도의회 의원들과 도민들의 결연한 의지를 만방에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며,

농수산위원회에서 제안한 ‘쌀 관세화 발표에 따른 쌀 산업 발전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은 지난 7월 18일 정부가 쌀산업발전 대책도 없이 쌀 관세화를 발표함에 따라 경상북도의회 의원들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쌀산업발전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조례안 심사

제272회 임시회 기간인 8월 27일 농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조례안 5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다.

강영석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에 따르면 축산

영세 축산농가 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관리 강화 촉구 정부지원 예산확보, 보조사업 예산낭비 방지 당부

물검사수수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의 수수료율로 변경 적용함과 동시에, 닭에 대한 도축검사 수수료를 인하하고, 기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였으며,

농수산위원회가 제안한 ‘경상북도 토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영일만신항민자사업출자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 띄어쓰기와 경상북도 조직개편에 따른 각 위원회 위원 명칭을 새로이 규정하고, 조문수정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였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농수산위원회는 이날 농축산국, 동해안발전본부,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

농수산위원들은 영세축산농가 지원강화, AI·구제역 살처분 농가 지원확대, 양식수산물 재해 보험료 대상품목 확대, 귀농귀촌지원센터 건립, 신제품등록 보상금 확대, 도내 친환경농산물 인증관리 강화, 어장 황폐화를 야기하는 무허가 통발 관리방안 마련, 암컷대게 남획 처벌기준 통일 및 강화, 국·도비 지원 공모사업 신청 홍보 강화, 친환경농산물 및 지역특산물 유통단지 구축과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촉구하였으며,

또한, 광복회계보조금 등 중앙지원 예산확보에 더 노력하고 어렵게 확보한 정부지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유사 사업들의 통합운영 방안 마련을 주문하였고, 각종 보조사업의 실효성 제고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사업대상자 선정시 사전검증 이행 철저 등 보조사업 계획수립과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

건설소방위원회

제27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활동

300만 도민의 뜻을 담아 남부권 신공항의 공정한 입지선정 촉구 건의 한국적 이미지를 담은 녹색성장, 행정복합중심도시 조성 당부

소관부서 추경예산안, 민생관련 조례안 심사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윤성규)는 제272회 임시회 활동기간 중인 26일과 27일 양일간에 걸쳐 건설도시방재국, 도청이전추진본부, 소방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경상북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심사·의결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는 도정의 최대 역점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선진화된 소방서비스 제공 및 현장 소방 대응능력 향상, 성공적인 도청이전사업 추진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다만,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보다 많은 국비예산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위원들은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심사에서 한옥전수조사 용역비와 관련 단순히 조사용역에 그치지 말고 경북만의 독특한 한옥정책을 수립토록 촉구하고, 학교용지부담금 순세계잉여금이 76억 9천만원이 증액된 것은 예산편성시 수요예측을 면밀히 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만큼 향후 예산편성시 수요예측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도로유지 보수가 취약한 북부지역 도로를 적기에 보수하여 도로구조의 보

일자리 창출, 균형발전 및 경제 활성화 등에 역점 보다 많은 국비예산 확보되도록 최선 당부

존과 재해 및 교통사고를 예방토록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심사에서는 대외통상교류관의 사업진척이 늦어진 것에 대해 질책을 하고 신도시 조성 기반시설, 유관기관단체 이전, 학교 및 병의원 등 정주기반시설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사업을 면밀히 검토·추진하여 한국적 이미지를 담은 녹색성장, 행정복합중심도시로 거듭나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소방본부 소관심사에서는 최근 화학물질 사고가 빈발하게 발생하여 특수구조 수요가 매우 많이 요구된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과 2017년에 건립될 119특수구조단 신설 부지가 포항시 기계면으로 선정된 사유에 대해 따져 물었다. 소방관서 현황 및 향후 신설계획이 어떠한지와 소방장비 보유 및 노후화 등에 대해 묻고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노후화된 소방장비, 소방관서 등을 빠른 시일 내에 보강토록 촉구했다. 조례안 심사에서는 김

수문 의원(의성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전 설계 및 시공 등을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감리원' 및 '품질관리자'로 구분하였던 건설기술인력이 '건설기술자'로 통합됨에 따라 자구수정과 부실공사 신고제도를 활성화 하기 위해 표준화된 서식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향후 부실시공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심의위원회와 지방심의위원회 및 특별심의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는 등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남천회 의원(영양이 대표발의)했고,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본식 표현인 '중개업자'와 '중개수수료'를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보수'로 용어를 변경하였고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소비자 이익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고 향후 주택 거래시 공정한 중개질서를 확립하고자 박문하 의원(포항이 대표발의)했다

'남부권 신공항의 공정한 입지선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 채택

9월 4일 긴급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남부권 신공항의 공정한 입지선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하였으며, 본회의에서 의결된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토교통부장관, 5개시·도지사 및 시·도의 회 의장에게 전달되었다. 🍁



1.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3. 도청신청사 현지방문 추진현황 보고



제27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활동

경북교육청, 심도있는 예산심사로 교육재정 효율성 증대 폐교재산 처분에 따른 세입증대 방안 마련 촉구



가용재원 확보 위해 우선순위·시급사업 조정 세출예산안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상임위원회 개최, 안건심사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영식)는 제272회 임시회 기간 중인 8월 26일과 27일 이틀간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추가경정예산안 1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다.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교육감이 과징금을 부과하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계약심

의위원회의 심사대상을 제외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상북도교육청 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취득재산 14건 945억 3,132만원과 처분재산 28건 46억 5,003만원의 관리계획안이 상정되었다.

상정된 관리 계획중 취득재산은 학교수용계획에 따라 신설학교 등의 사업으로 부지와 건물

을 취득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며 처분재산은 장래 교육·행정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 없고 재산가치가 증대될 가능성이 적은 재산과 비위생적이거나 노후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건물 등을 매각·철거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되었다.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김천혁신도시내 학교신설과 노후된 경북체육고등학교 교사 개축 등은 전반적으로 적절한 계획이라 판단하였다.

매각 대상 재산중 포함 동해초등학교 흥환분교장은 2013. 3. 1. 자로 폐교이후 7차례에 걸친 경쟁 입찰 공고가 있었으나 유찰되어 향후 교육시설로 활용할 계획이 없어 장기간 방치하는 것보다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처분승인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의 심의 결과 최근 흥환분교장이 위치한 인근지역에 5,400억원 규모의 투자계획이 발표되었으며 지역적인 입지여건과 장래교통여건 개선 등을 감안할 때 성급한 매각보다는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매각대상 재산에서 제외하여 수정 가결하였다.

제2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였다.

이번에 제출된 세입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중앙정부 이전수입 608억원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956억원을 비롯하여 자체수입과 지방교육채동 총 1,820억원의 재원으로 편성되었다.

집행부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심사결과 목적 지정사업 687억원과 교원명예퇴직수당 334억 원, 학생수용시설 401억원 등 필수반영사업에 1,794억원을 반영하여 가용재원 규모가 예년에 비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 신·증설과 관련된 예산은 보통교부금으로 전액 교부되어야 하나 중앙정부의 예산사정상 교부되지 못한 671억원은 지방교육채 발행을 승인받아 충당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중앙정부가 승인하여 추후 보전한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중앙정부 예산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노력해 줄 것과 차입금액의 이자 보전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차입 시기 선정에도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어려운 여건속에서 가용재원 확보를 위하여 행사성 경비와 선심성·소모성 사업을 배제하고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한하여 투자 우선순위대로 세출예산안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다. 🍀



1. 제1차 교육위원회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2. 3. 교육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도정질문

교통오지 해소방안, 소규모학교 미래지향적 통폐합 촉구

황재철 의원(영덕)



경상북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119특수구조단 부지선정시 선정위원들이 해당 시군에 현지 답사를 하지 않고 실·국장들이 제시한 동영상만 보고 선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부지 선정에 외압이나 다른 압력이 있었는지를 따졌고, 도로가 지역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대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라도 지금까지 경북 내륙의 섬 아닌 섬이라고 불리어 왔던 북부 내륙지역과 동해안에 대한 도로개선과 정비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경상북도교육감 상대로는 통폐합 및 기숙형 중학교 설립 계획을 수립하고 설명회, 토론회 등을 통폐합의 필요성과 대안을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여 통폐합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학생들에게 더 나은 학교 환경을 제공하고 학습권을 되돌려주며, 학부모에게는 소규모 학교에 속해 있어도 교육만큼은 걱정하지 않도록 하여 지역사회의 안정을 도모하는 교육행정을 펼치는 것이 옳다고 지적하고 교육감의 견해를 물었다.

도 금고 자금운영 개선, 경주 신라왕경사업 조속 추진 촉구

이진락 의원(경주 2)



이진락 의원(경주)은 도정질문에서 도 금고의 부실한 자금운영에 대한 대책 마련과 경주 신라왕경사업의 조속한 추진 및 초·중·고 문화예술교육 확대 등을 촉구했다.

지난해 일반회계 총 5조 9,470억원의 이자수입이 67억원으로 이자수익률이 0.11%에 불과하며 이는 전국 11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라며, 주먹구구식 도 금고 운영에 대해 질책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례 제정을 비롯해 효율적인 금고운용 및 관리대책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2025년까지 12년간 총사업비 9,450억원을 들여 추진할 예정인 경주 신라왕경복원사업이 초기부터 담보상태에 있음을 지적하고,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가시화되도록 촉구했다. 그리고 초·중·고 창의인성교육을 위해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하는데 도 교육청이 적극 나서 지역문화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내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및 특정 지역 교원 편중배치 해결 촉구

장용훈 의원(울진1)



도내 도시가스 보급률(54%)은 전국 평균(76.4%)에 크게 못 미치고 8개 군은 공급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가스요금도 공급지역별 가격 편차, 수도권에 비해 더 비싼 요금 등 도시가스 공급에서 소외된 농어촌, 도심 변두리 지역 등은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경제적 부담이 너무나 큰 상황이라면서,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및 소외지역 해결 대책과 불합리한 난방비 편차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경험과 역량이 풍부한 중견교사들은 대도시 및 대구 인근학교에 배치되고, 울진, 영덕, 청송 등 특정 오지 지역의 시골학교는 역량이 젊거나 역량이 전무한 신규교사 위주로 배치되어 중견교사 수가 해마다 줄어드는 기이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교육청의 특정 교사 지역편중 배치 해결방안, 경력교사 추가 유인대책, 열악한 교사사택 개선책이 무엇인지를 질문한 후 지역간 교육격차를 줄이고, 도내 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실효적 방안들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지방공기업 경영정상화, 도내 지역별 불균형 심화 대책 촉구

김수문 의원(의성2)

경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혁신, 집행부의 일방통행식 행정, 도내 지역균형발전, 실크로드 사업 문제점 등에 대해 따져 물었다. 지난해 경북개발공사와 경북관광공사 등의 부채가 크게 늘어났으며 이는 지방공기업의 방만하고 무책임한 경영방식과 부채에 대한 상환인식이 안이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조기에 경영정상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부채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면서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고 과감하게 자산을 매각하는 등 허리띠를 더 졸라매 것을 촉구했다.

또한, 지난 6월 26일 새출발위원회가 도청 신청사 이전을 내년 7월로 연기한다고 발표하는데 대해 사전에 도의회와 상의도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발표한 것은 위원회의 권한을 벗어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김 의원은 최근 6년간 북부권 8개 시·군중도 평균을 넘어선 지역은 단 한곳도 없는 등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하며 도의 대책마련과 실크로드사업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상북도가 추진하기에는 부적절한 사업이라며 전액 국비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쌀 관세화에 따른 경북도의 견해와 쌀산업 대책

강영석 의원(상주 2)

농도(農道) 경북을 위협하는 쌀 관세화 결정에 대해 경상북도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정부에 무엇을 요구할 계획인지 사례를 통하여 강력한 대응책을 집행부에 요구하였다.

UR 협정에 의하여 쌀 수입을 피할 수 없으므로 수입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인 관세율과 쌀 산업대책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를 해야하며, 정부의 법률적, 정치적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관세를 감축이나 공산품 부문을 일부 양보해서라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하는 MMA물량의 용도제한을

풀어서 국내 수급조절이 수월해지도록 하고, 대북지원의 활용과 MMA량의 30%를 쌀쌀용으로 사용하는 규정도 폐지하는 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FTA 순이익 환수제도의 도입, 농특세에 FTA 수출기업 관련 세입원을 추가로 정해 재원을 확보토록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5분 자유발언

울릉도·독도 실효적 발전방안 강력 촉구

남진복(울릉군) 의원은 포항-울릉간 여객선 결항일이 많은 겨울철에는 운항 손실비용 만큼의 유류비를 지원하여 울릉군 주민 등에 대하여 생존권적 이동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울릉도 정주여건 개선 및 독도영유권의 명확한 법제화를 위해 추진중인 울릉도·독도지원 특별법이 국회 계류중으로 시행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남진복 의원(울릉)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증진 강력촉구

구자근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하여 참전유공자가 받는 예우는 독립유공자 등과 비교해볼 때 형편없이 낮다고 지적하며 이들에 대한 예우증진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보훈보상금 지급에 있어 독립유공자중 가장 낮은 수당을 받고 있는 대통령표창 독립유공자가 월 154만원, 참전유공자와 같은 그룹에 속하는 재일학도의용군인도 월 116만 1천원을 받고 있으나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은 월 17만원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실적으로 증액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구자근 의원(구미3)

도립 공공도서관 건립 전면 재검토 촉구

이상구 의원(포항)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청이전 신도시에 건립예정인 경북도립 공공도서관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도서관 건립에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될 뿐 아니라 매년 적지 않은 운영비가 소요될 것이며 건립후 상당기간 텅 빈 도서관이 될 수도 있음을 우려하고, 지역민에게 가장 친근한 공공도서관이 되도록 현재 운영중인 기존 도서관 활용 등 도립 공공도서관 건립을 다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상구 의원(포항)



제272회 임시회 주요 처리안건 소개

▶ 경상북도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발의자 : 도기욱 의원 외 3명 2014. 8. 11.
- 제안이유 : 소비자 의식향상 및 경제발전 등 소비 생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소비자정책 패러다임을 사회적 약자인 “소비자 보호”에서 스스로 능력을 갖춘 “적극적·주권적 소비자”로 주권강화와 권익향상에 기여하고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의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다.

▶ 경상북도과학기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도지사 2014. 8. 11.
- 제안이유 : ‘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과학기술진흥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에 자문·조정 기능을 추가하며, 위원장을 과학업무 소관 부지사로 변경 및 과학기술 R&D 기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기획·관리 전담지원조직’을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과학기술진흥산업에 ‘첨단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지원’을 추가함이다.

▶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 제출자 : 경상북도지사 2014. 8. 11.
- 제안이유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경상북도 규제시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 것이다.

▶ 경상북도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출자 : 경상북도지사 2014. 8. 11.
- 제안이유 : 고문변호사 위촉에 따른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방안(2013년)」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이다.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자 : 경상북도지사 2014. 8. 11.
- 제안이유 : 난산 및 조산율이 높은 돌 이상의 자녀

를 임신한 공무원의 출산 휴가기간을 확대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신초기 출산 휴가 사용으로 태아 및 모성보호와 저출산 문제해결에 기여, 장기재직 특별휴가 실시를 통한 도정발전에 창의적인 정책 구상, 자녀 군입영일 특별휴가 실시로 국방의 무수행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 고취를 위함이다.

▶ 경상북도공무원주거안정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자 : 경상북도지사 2014. 8. 11.
- 제안이유 : 경상북도 도청이 안동시·예천군 일원으로 이전함에 따라 도 소속 공무원과 가족의 동반이주로 인한 급격한 생활기반의 상실과 경제적 부담가중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이다.

▶ 2014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제출자 : 경상북도지사 2014. 8. 11.
- 제안이유 : 도민의 정보 접근권과 도서관 업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도서관 지원과 협력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청 이전 新도시내에 「도립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신도시를 명품 문화도시로 조성하고자 하며, 「경상북도 보훈회관」 신축·건립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의무적 설치 등에 따른 공사비 상승으로 당초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함이다.

▶ 쌀 관세화 발표에 따른 쌀 산업 발전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 제출자 : 농수산위원회 2014. 8. 18.
- 제안이유 :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7월 18일 정부는 국내 쌀 산업발전 대책 없이 쌀 관세화를 선언하였음. 이에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국민과 농업인이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쌀 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 경상북도 가족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자 : 강영석 의원 외 12명 2014. 8. 11.
- 제안이유 : 「축산물가공처리법」이 「축산물위생관

리법」으로 법령이 변경되었고, 정부조직법(법률 제 11690호, 2013. 3. 23. 시행) 개정 및 행정규칙 일괄 제·개정(규제개혁법무담당관-228호, 2013. 4. 5)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에 따르던 축산물검사수수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의 수수료율로 변경 적용함과 동시에, 닭에 대한 도축검사수수료를 인하하고, 기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한 것이다.

▶ 경상북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자 : 김수문 의원 외 8명 2014. 8. 11.
- 제안이유 : 경상북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의 근거 법령인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2014.5.23 시행) 됨에 따라 인용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러 함이다.

▶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자 : 남천희 의원 외 8명 2014. 8. 11.
- 제안이유 : 조례의 근거법령인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2014. 5. 23 시행) 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의 내용 중 일부 오류를 수정하여 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자 : 박문하 의원 외 9명 2014. 8. 11.
- 제안이유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4. 1. 28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분법 개정되어 2014. 7. 29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된 내용을 반영코자 함이다.

▶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제안자 : 교육감 2014. 8. 11.
-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의거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함이다.
※ 취득재산 94,531,321천원, 처분재산 4,550,034천원

※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칼·럼

코골이 장치물 치료



증상이 재발하는 단점이 있어 최근에는 특별한 경우에만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 각광 받고 있는 코골이, 무호흡증 치료법으로는 구강내 장치물과 양압 호흡기 등이 있다. 중증환자에 주로 쓰는 양압기 같은 경우 효과는 비교적 좋으나 수면중 불편감과 고비용으로 선택이

제한적이다.

구강내 장치물의 경우는 간단한 이비인후과 검사(내시경/CT 검사) 후 턱관절이나 치아 이상이 없는지 확인(치과 전문의가 검사하는 것이 원칙)하고 환자 개인에게 맞는 장치물을 제작하면 간단히 끝난다. 코골이 환자의 경우 수면중 목젖상부나 하인두에 좁아지는 부위가 생기는데 아래턱을 앞으로 돌출 시켜 호흡에 필요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장치물의 원리이다. 수면 중에만 틀니처럼 끼우고 자면 되고, 휴대도 간편해서 여행중에도 타인의 잔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다는게 장점이다. 치아 모양대로 본을 뜬 다음 대개 1주일 정도면 완성되며 착용한 날 밤에는 동거인이, 다음날 아침에는 본인이 행복해 질 수 있다.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니 통증 없이 증상이 좋아질 수 있고 비용도 수술의 절반 정도이다. 연세가 많은 어르신이나 수술이 무섭거나 수술을 할 상황이 되지 않는 분들에게 권할 만한 치료법이다. 🍷

맥이비인후과 / 수성연합치과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359 ☎ 053-427-7585



김 광 훈 원장
(맥이비인후과)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동물 중 인간은 가장 복잡한 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직립 보행을 하는 인간이 중력에 적응하기 위해 진화되었다고도 하고 음식 삼키기와 말하기, 숨쉬기를 동시에 할 수 있게 변화 되었다고도 한다. 이런 복잡한 코 구조와 인후두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코골이와 무호흡증은 과거에는 질병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중, 장년층의 돌연사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실제로 코골이 환자의 경우 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등의 합병증 발생률이 정상인에 비해 2~3배 이상 높다.

과거에는 레이저로 목젖만 간단히 제거하는 코골이 수술이 유행한 적이 있으나 수술 후 목에 이물감이 생기거나 2~3개월 후 체중이 다시 늘면서



경상북도의회
GYEONGSANGBUK-DO COUNCIL

<http://council.gb.go.kr>



제10대 경상북도의회 개원식에서 60명이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의원선서를 하고 있다

도민의 참 뜻을 받들어 열린 의정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도민에게 편안한 의회, 열린 의회, 소통하는 의회

경상북도의회 의원들은

소외받고 어려운 우리 이웃에게 봉사하며 도민의 권익신장과
균형발전을 위해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믿어주시고 늘 성원해 주신 도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희망찬 경북! 앞으로도 희망찬 미래를 위해 도약하겠습니다.

